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무너진 ‘펙사벡’의 꿈... 경영공백과 상장폐지 위기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내부 정보 이용... 손실 회피 의혹
한때 코스닥 시장 시총 2위 기록
29일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



문은상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면역항암제 ‘펙사벡’으로 한 때 K-바이오의 기대주였던 신라젠이 벼랑 끝에 섰다.

회사 지분을 불법 취득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문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서, 신라젠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다. 현재 개발 중인 항암제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문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

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문 대표의 친인척인 광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도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라젠이 개발해온 면역항암제 펙사벡은 말기암 환자들은 물론 코스닥시장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였다.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라젠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며 한때 코스닥 시장 시총 2위(9조8000억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펙사벡의 임상3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는 끝없이 폭락했다. 문 대표는 주가 폭락 전 1325억원 규모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됐다.

당시 문 대표는 “임상3상이 진행되는 순간 회사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분은 미리 세금 등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 대표의 구속으로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9일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8월쯤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공백에 상장폐지 위기까지 겹치며 신라젠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R&D)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

다. 신라젠은 현재 신장암에 대한 펙사벡의 임상1상을 한국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며, 지난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동물실험을 시작한 바 있다.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다. 신라젠은 지난해 8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영업손실은 744억원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손실도 전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129억원에 달했다.

신라젠은 이와 관련 “임직원들은 현재 진행 또는 예정된 임상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항암바이러스 펙사벡 상용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GC녹십자MS, 국내 최대 혈액투석액 공장 가동

자사 용인공장 생산규모 3배 수준
연 410만개 혈액투석액 생산 가능
창고관리시스템, 생산 효율 개선



GC녹십자엠에스 충북 음성 제2공장 전경

국내 최대 규모의 혈액투석액 공장이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GC녹십자엠에스는 최근 혈액투석액을 생산하는 음성 제2공장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허가를 마치고 이달 말 첫 생산을 앞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단지에서 약 260억원을 투자해 완공한 음성 제2공장은 혈액투석액을 제조하는 국내 최대 규모 플랜트로, 대지 면적 약 2만2000㎡ 규모에 연간 410만개에 달하는 혈액투석액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기존 자사 용인 공장 생산 규모의 3배 수준이다.

음성 제2공장은 원료 이송부터 제

조, 포장, 창고 입고에 이르는 전 공정을 자동화했다.

특히 공장 내 냉난방, 환기 등 공조 시스템이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건물관리시스템(BMS)과 제품 입고부터 출하까지 과정을 자동 제어하며 품질을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WMS) 도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은 대폭 개선했다.

국내 혈액투석액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춘 GC녹십자엠에스는 이번 공장을 통해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위상을 굳히는 동시에 혈액투석액 사업을 캐시카우로 더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Wnt 표적항암제 SCI급 국제학술지 등재



안전관해, 부분관해 유효성 확인

JW중외제약이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Wnt 표적항암제에 대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JW중외제약은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을 적응증으로 진행한 CWP291의 임상 1a상(단독투여) 결과가 미국 혈액학회(ASH)가 발간하는 ‘블러드어드반시스(Blood Advances)’ 온라인판에 등재됐다고 12일 밝혔다.

CWP291은 암세포의 성장과 암 줄기 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Wnt/β-catenin)의 기전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급성골수성백혈병, 다발골수종, 위암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논문은 JW중외제약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미국과 한국

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로 ‘재발성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및 골수이형성증후군(MDS) 환자에서 CWP291의 1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해당 임상시험은 4mg/㎡ 용량부터 시작해 CWP291의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최대내약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논문에 따르면 기존 치료제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64명, 골수이형성증후군 5명 등 총 69명을 대상으로 CWP291의 ‘용량증량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최대내약용량인 14단계(257mg/㎡)까지 양호한 안전성 프로필을 확인했다.

유효성 평가는 AML과 MDS에 대한 국제실무그룹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한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54명 중 암세포가 사멸된 완전관해(CR) 환자 1명이 확인됐으며, 1명은 부분관해(PR)를 보였다.

/이세경 기자

제약바이오協-SK C&C

개방형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협약

신약 개발 위한 빅데이터 확보
인프라 구축, 전문가 양성 등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SK C&C는 12일 ‘개방형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전문 정보기술(IT) 기업과 제약사의 ‘AI 신약개발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개방형 인프라 구축 ▲신약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관련 서비스 공유 ▲제약사 대상 교육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 상호 협력 방안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AI를 통한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SK C&C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개방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화종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센터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제약사들의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덴티가드랩 브랜드 웹사이트

대웅제약

‘덴티가드랩’ 웹사이트 오픈

대웅제약은 12일 구강생애주기별 맞춤 치약 ‘덴티가드랩’ 브랜드 웹사이트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오픈 기념으로 최대 33% 가격 할인과 무료 체험키트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웅제약은 ‘덴티가드랩’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구강 정보와 제품 구매, 이벤트 등 소비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한섬, BTS ‘피 땀 눈물’ 모티브... 캡슐 컬렉션

티셔츠·셔츠·원피스 등 25개 모델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의 남녀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시스템엠프가 ‘방탄소년단(BTS)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시스템·시스템엠프 | BTS’ 1차 캡슐 컬렉션은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중 하나인 ‘피 땀 눈물’을 모티브로 티셔츠·셔츠·원피스·후드 티셔츠 등 의류 아이템 20개 모델과 모자·양말 등 액세서리 5개 모델 등 총 25개 모델로 구성된다.

이번 1차 캡슐 컬렉션에 선보이게 되는 제품들은 ‘피 땀 눈물’ 뮤직 비디오에 나오는 그래픽 디테일과 사물(오브제) 등을 시스템·시스템엠프만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해



한섬 시스템·BTS 협업 여성티셔츠&캡

의상에 적용한 게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